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81



Contents

※ 2025.05.29.(목) 기준(대상 기간 : 2025.05.21.~2025.05.28.)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수소

- 전남도, 수소산업 발전 협의체 열어 민관산학 협력 강화 (2025.05.21) 1
- 인제군, 수소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2025.05.22) 1
- 부산서 '무탄소에너지 연구회' 출범, 수소·암모니아 협력 가속화 (2025.05.22) 2
- 제주포럼, 수소트램 등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 전략 논의 예정 (2025.05.27) 2
- 태백시, 강원남부권 최초 수소충전소 건립 본격화 (2025.05.27) 2
- 경북 포항, 국내 최대 규모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조성 착수 (2025.05.27) 3

-

▪ UAM

- 국토부, 로봇·UAM 접목 스마트 빌딩 핵심 기술 개발 본격 착수 (2025.05.28) 4
- 자율주행·UAM 등 첨단 교통의 미래를 선보이는 '수원 ITS 아태총회' 개최 (2025.05.21) · 4

▪ 우주

- 한-프랑스 경제계, 미래대화 통해 탈탄소·우주 등 협력 약속 (2025.05.21) 5
- 한미 안보협력, 미사일 방어 넘어 우주 영역까지 확장 필요성 제기 (2025.05.22) 5
- 과기정통부, KAIST '소형 무인 우주정거장 플랫폼' 등 리더연구 선정 (2025.05.28) 5
- 진주시, LDRA와 우주항공산업 인증 생태계 구축 협약 (2025.05.21) 6

- 대전시,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위한 '우주기술 연구·활용 특구'로 선정 (2025.05.21) 6
- 이노스페이스, 고흥에 민간 우주발사체 종합시험장 준공 (2025.05.22) 7
- 은평구, 중학생 대상 '항공우주캠프' 개최...인재 양성 나서 (2025.05.23) 7
- 진주시, '항공우주 품질인증 지원사업'으로 지역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 (2025.05.26) ... 7
- 사천시, 도시브랜드 강화 위해 '사천우주체'·'사천항공체' 2종 공개 (2025.05.28) 8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수소

- 한국수소연합, 네덜란드 '세계 수소 서밋'서 한국관 운영 (2025.05.22) 9
- 재료연, 폭발 위험 없는 고체 수소 저장 신소재 개발 (2025.05.22) 9
- 기계연, 자연 태양광만으로 그린수소 대량생산 기술 개발 (2025.05.22) 10
- GIST, 철 촉매의 전자스핀 제어로 수소 생산 효율 극대화 메커니즘 규명 (2025.05.22) 10
- 서울에너지공사-효성중공업, 도심형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협력 (2025.05.28) 10

■ 우주

- 우주항공청 개청 1주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 지적 (2025.05.21) 11
- 국립광주과학관, '우주항공 문화주간' 맞아 특별 이벤트 운영 (2025.05.23) 12
- 우주항공청, 내년 누리호 5차 발사 위한 준비 공식 착수 (2025.05.26) 12
- KCL, 美 ASTM과 우주항공 표준개발 협력...국내 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2025.05.26) 13
- GIST, '우주를 그리다' 과학상상 어린이 미술대회 성공적 개최 (2025.05.22) 13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수소

- 미래 철강 핵심 '수소환원제철', 경쟁국 대비 미흡한 정부 지원 지적 (2025.05.21) 14
- 삼성E&A, 그린수소 생산 통합 솔루션 '컴퍼스 H2' 공개 (2025.05.22) 14
- 현대차그룹, 글로벌 파트너십 통한 수소 생태계 확장 강조 (2025.05.22) 15
- 두산그룹, SMR·수소 등 미래사업 가속 위해 3년간 2.6조 투자 (2025.05.23) 15
- 현대차그룹, AI·로봇·수소 등 미래 분야 스타트업에 1250억 투자 (2025.05.26) 15
- 경상국립대, 외부 전력 없는 수소 생산 기술 구현 (2025.05.21) 16
- KAIST, 변동성 높은 재생에너지 환경서 수소 촉매 수명 예측 지표 첫 개발 (2025.05.21) 16
- 한양대 하성규 교수, 세계 최초 재활용 수소탱크 기술 상용화 성공 (2025.05.22) 17
- 수소 모빌리티, 실내물류·선박까지 전면 확대 위한 규제 개선 (2025.05.25) 17

■ 우주

- 큐알티, 우주항공 핵심 반도체 국책과제 참여 소식에 주가 상승 (2025.05.21) 18
- 삼성물산, 우주 후방산업 진출 및 SMR 기대감에 주가 급등 (2025.05.21) 19
- 경상국립대, 네덜란드 왕립항공우주연구원과 기술교류회 개최 (2025.05.21) 19
- 순천대-에이블맥스, 우주항공 고흥캠퍼스 활성화 위한 협약 체결 (2025.05.23) 19
- 트럼프,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망 '골든 돔' 계획 공식 발표 (2025.05.21) 20
- 중국, 우주정거장 '텐궁'에서 지구에 없는 신종 박테리아 발견 (2025.05.21) 20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해당 없음)
지자체	<p data-bbox="306 667 1358 703">□ 전남도, 수소산업 발전 협의체 열어 민관산학 협력 강화 (2025.05.21)</p> <ul data-bbox="325 730 1469 1256"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남도가 여수에서 제5회 전남 수소산업 발전 협의체를 개최하고,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 협약과 에너지산업 동향 공유 등을 통해 민관산학 협력 기반을 강화함. GS칼텍스, 남해화학, 효성중공업 등 28개 주요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여 협력 네트워크를 다짐 - 행사에서는 국내외 에너지산업 동향 분석과 전망이 발표되었으며, 코멤텍과 빈센 등 전남 지역의 수소 전문기업 성장 및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짐. 참석 기관들은 협의체 공동 기획 방안과 기업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며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약속 - 특히 녹색에너지연구원과 2025년 예비수소전문기업으로 선정된 7개사 간 지원 협약이 체결됨. 이를 통해 기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전남 동부권의 탄소배출 산업 구조를 수소 기반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 <p data-bbox="306 1328 1249 1364">□ 인제군, 수소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2025.05.22)</p> <ul data-bbox="325 1400 1469 1951"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인제군이 대기오염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음. 올해 지원 물량은 총 10대 규모이며,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 -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인제군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관내 사업장이며, 지원 차종은 현대자동차 넥쏘임. 보조금은 차량 1대당 3,450만 원이 지원되며, 구매 희망자는 구매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으로 진행되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생애 첫 차 구매자 등이 우선순위로 선정됨. 이번 사업은 군민의 친환경차 구매 부담을 줄이고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전망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부산서 '무탄소에너지 연구회' 출범, 수소·암모니아 협력 가속화 (2025.05.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무탄소에너지 협력 플랫폼인 '무탄소에너지 연구회'가 부산에서 공식 출범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함. 이 연구회는 수소, 암모니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기반 에너지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전략과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설정 - 출범식에서는 산·학·연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하여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액체수소 인수기지 및 병커링 허브 조성과 국제 협력형 테스트베드 구축 방안을 제시함. 또한, 액체수소 기반 초저온연구소의 부산 유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 연구회는 앞으로 지속 가능한 무탄소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학·연·관 다자간 거버넌스를 주도하고 기술 융합형 연구모형을 이끌어 나갈 계획임. 이는 국내 제1의 항만 도시인 부산이 국가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
	<p>□ 제주포럼, 수소트램 등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 전략 논의 예정 (2025.05.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가 제20회 제주포럼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구현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세션을 개최하여 탄소중립과 수소트램 도입 등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이번 세션은 제주의 미래 도시 비전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임 - 세션에서는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탄소중립도시'와 '도시 지능화'의 제주 적용 방안을 제시할 계획임. 지속가능발전의 배경과 주요 내용 소개를 시작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전망임 - 특히 최근 관심이 높은 수소 트램과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과 자율주행 등 첨단 정보기술 접목이 가져올 미래 교통체계의 변화에 대해서도 소개될 예정임. 이를 통해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향을 모색함
	<p>□ 태백시, 강원남부권 최초 수소충전소 건립 본격화 (2025.05.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태백시가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수소충전소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냄. 이는 강원남부권 최초의 수소차 충전 거점 확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짐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될 충전소는 시간당 최대 25kg의 수소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이는 승용차 기준 약 5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임. 충전소 완공 시 지역 내 친환경차 운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의 기반이 마련될 전망 - 태백시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인프라 확장을 넘어,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도시로 전환하는 전략적 계기로 삼을 방침임.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도내 수소차 보급을 늘리며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p>□ 경북 포항, 국내 최대 규모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조성 착수 (2025.05.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 포항시가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 산업 특화단지인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며 사업을 본격화함. 이는 포항을 미래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임 - 클러스터는 포항블루벨리국가산단 내 28만㎡ 부지에 총 1,918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됨. 이곳에는 수소 관련 기업 30여 개가 입주할 기업집적화 구역과 부품소재 성능평가센터, 연료전지 실증 구역 등이 들어설 예정 - 포항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행정절차와 설계를 마무리하고 연말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클러스터가 완공되면 약 30개 기업 유치, 1만 명 이상의 고용 유발, 8천억 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중앙부처</p>	<p>☐ 국토부, 로봇·UAM 접목 스마트 빌딩 핵심 기술 개발 본격 착수 (2025.05.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가 로봇이나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신기술이 건축물 내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스마트 빌딩 핵심 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함. 이를 위해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과 함께 2028년까지 연구개발을 진행할 예정 - 이번 연구개발 과제는 크게 세 가지 중점 과제로 구성됨. 로봇 친화형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 기술 개발, 다중·다수 로봇을 지원하는 개방형 관제 플랫폼 및 운영·관리 기술 개발, 그리고 개발된 기술을 실제 건축물에서 실증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것임 - 국토부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등 3곳을 실증 후보지로 검토 중이며, 전담팀을 구성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임. 민간 전문가 자문을 통해 로봇, UAM,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가 실제 건축물에 성공적으로 적용 및 확산되도록 지원할 방침
<p>지자체</p>	<p>☐ 자율주행·UAM 등 첨단 교통의 미래를 선보이는 '수원 ITS 아태총회' 개최 (2025.05.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S가 제시하는 초연결 도시'를 주제로 '2025 수원 ITS 아태총회'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됨. 이번 행사는 세계 20여 개국의 지능형교통체계(ITS) 전문가 2500여 명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로, 한국에서는 23년 만에 열려 큰 의미를 가짐 - 총회 기간에는 국내외 50여 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는 전시회가 열려, 자율주행 주차 로봇과 미래형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시연 등 첨단 기술을 일반 관람객에게 선보임. 또한, 최신 ITS 기술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술 시연도 함께 진행 - 이 외에도 20여 개국 교통 분야 장·차관이 참여하는 고위급 회의와 최신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학술대회가 열림. 첫날 저녁에는 드론 1200대가 투입되는 드론 아트쇼가 펼쳐지는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첨단 교통의 미래를 한눈에 조망할 기회를 제공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한-프랑스 경제계, 미래대화 통해 탈탄소·우주 등 협력 약속 (2025.05.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 프랑스 경제계가 파리에서 '제2차 한-프랑스 경제계 미래대화'를 개최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함. 양국 주요 기업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하여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 협력 방안을 논의 - 양국 경제계는 항공우주, 첨단소재, 탈탄소 에너지, 스타트업 등 4개 핵심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논의함. 특히 항공우주 산업에서는 차세대 항공기 공동 연구 및 부품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 -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수소, 재생에너지 등 탈탄소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연계하여 혁신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로 함. 제3차 미래대화는 2026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
	<p>☐ 한미 안보협력, 미사일 방어 넘어 우주 영역까지 확장 필요성 제기 (2025.05.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에 참석한 미국 정관계 인사들이 한미 안보 협력의 범위를 우주 영역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제언함. 이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미사일 및 드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큰 그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임 - 미라 리카르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에만 매몰되지 말고, 우주를 포함한 포괄적인 안보 협력 방안을 함께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함. 이는 동맹의 방위비 분담 압박이 특정 행정부의 정책이 아닌 초당적 합의 사항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나옴 - 또한, 비키 하츨러 전 공화당 하원 의원은 한미 간 조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권한으로 한국에 특별 면제 혜택을 제공해 미 군함 건조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을 언급함. 이는 양국 모두에게 훌륭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
	<p>☐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AIST '소형 무인 우주정거장 플랫폼' 등 리더연구 선정 (2025.05.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최고 연구자와 연구집단을 지원하는 '리더연구' 및 '선도연구센터'의 2025년도 선정 결과를 발표함. 이를 통해 세계 정상급 기초연구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장기적으로 지원하여 국가 연구 역량을 강화할 방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국가전략기술 분야 대형 융복합 연구그룹을 육성하는 혁신연구센터(IRC)로 KAIST의 '우주 서비스 및 제조 연구센터'가 최종 선정됨. 이 센터는 연 50억 원을 10년간 지원받아 도전적인 연구 목표를 수행하게 됨 - KAIST 연구센터는 우주 서비스 및 제조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형 무인 우주정거장 플랫폼을 구현하여 우주에서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는 미래 우주 시대를 대비한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로 평가
지자체	<p>□ 진주시, LDRA와 우주항공산업 인증 생태계 구축 협약 (2025.05.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 진주시가 영국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인증 전문기업인 LDRA와 '우주항공산업 인증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이번 협약은 진주시가 우주항공산업의 핵심 기반인 인증 분야에서 지역 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 - 세계적인 수준의 소프트웨어 검증 및 인증 역량을 보유한 LDRA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인증을 자체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임. 이는 기업들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 - 이번 협약은 궁극적으로 지역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둠. 진주시는 이를 통해 지역 우주항공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p>□ 대전시,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위한 '우주기술 연구·활용 특구'로 선정 (2025.05.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수도 대전이 '대전 우주기술 연구·활용 특구'로 최종 선정되어 미래 우주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함. 이번 특구는 국가 중심의 우주개발 체계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의 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둠 - 특구는 유성구와 대덕구 일원에 조성되며, 2029년까지 운영될 예정임. 총 19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항우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11개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해 우주추진용 부품의 시험·제작·인증 전 주기를 실증하게 됨 - 특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현행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들이 고압가스를 활용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부품을 자유롭게 제작하고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 이를 통해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업들의 사업화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됨</p>
	<p>□ 이노스페이스, 고흥에 민간 우주발사체 종합시험장 준공 (2025.05.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최초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인 (주)이노스페이스가 전남 고흥에 종합시험장을 준공하며 민간 우주산업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림. 이 시험장은 민간 주도로 구축된 발사체 핵심 시험 인프라임 - 고흥 종합시험장은 총 253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25톤급 하이브리드 및 3톤급 액체엔진 연소시험시설 등을 갖추. 이를 통해 이노스페이스는 향후 상업 발사를 위한 다양한 시험을 수행하며 기술력을 고도화할 수 있게 됨 - 이노스페이스는 지난해 '한빛-TLV' 시험발사에 성공했으며, 올해 하반기 첫 상업 발사를 계획 중임.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노스페이스가 'K-우주 챔피언'으로 성장하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약속함
	<p>□ 은평구, 중학생 대상 '항공우주캠프' 개최...인재 양성 나서 (2025.05.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은평구가 미래 항공우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항공우주캠프'를 운영함.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열리는 이번 캠프는 학생들에게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캠프는 비행 시뮬레이터 실습, 드론 아케이드 실습, 항공 정비 실습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학생들은 비행 원리를 배우고 직접 항공기 조종을 체험하며, 블록 코딩을 통해 드론을 조종하는 방법도 익히게 됨 - 이 외에도 실제 항공기 관람, 항공우주박물관 견학, 대학생 선배와의 만남 등 다채로운 활동이 마련됨. 은평구는 이번 캠프가 학생들이 꿈과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p>□ 진주시, '항공우주 품질인증 지원사업'으로 지역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 (2025.05.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 진주시가 지역 내 중소 항공우주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우주 품질인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함. 이 사업은 기업들이 국제 항공우주 분야 납품에 필수적인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은 KS Q 9100 등 '항공우주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의 획득, 갱신,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전문 컨설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이를 통해 지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진주시는 이번 지원사업이 지역 항공우주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들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이는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임
	<p>□ 사천시, 도시브랜드 강화 위해 '사천우주체'·'사천항공체' 2종 공개 (2025.05.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 사천시가 '제1회 우주항공의 날'과 우주항공청 개청 1주년을 기념하여 시의 정체성을 담은 전용 서체 2종을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함. 공개된 서체는 '사천우주체'와 '사천항공체'로,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로서의 도시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개발됨 - '사천우주체'는 우주의 광활함과 기하학적 조형미를 담은 제목용 서체이며, '사천항공체'는 활주로와 비행기의 유려한 선에서 영감을 얻어 속도감과 첨단 이미지를 표현한 헤드라인용 서체 - 시는 전용 서체를 각종 홍보물과 공공 디자인에 적극 활용하여 도시 이미지 통합과 브랜드 가치를 높일 계획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한국수소연합, 네덜란드 '세계 수소 서밋'서 한국관 운영 (2025.05.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수소연합이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린 '2025 세계 수소 서밋 & 전시회 (WHS 2025)'에서 한국관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국내 수소 산업의 기술력을 홍보함. WHS 2025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수소 전문 행사로, 각국 정부와 기업 전문가들이 모여 정책과 기술을 논의 - 한국관에는 현대자동차, 두산퓨얼셀,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 9개 기업이 참여하여 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 핵심 기술과 제품을 선보임. 이를 통해 국내 수소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영향력을 적극 알림 - 김재홍 한국수소연합 회장은 기조연설자로 나서 한국의 수소경제 추진 전략을 소개했으며, KOTRA와 협력해 비즈니스 파트너링 상담회를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해외 진출 기회를 모색함. 앞으로도 주요 국제 전시회 참가를 확대해 국내 기업을 지원할 계획
	<p>□ 재료연, 폭발 위험 없는 고체 수소 저장 신소재 개발 (2025.05.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재료연구원(KIMS) 연구팀이 고압 용기나 극저온 설비 없이 수소를 안전하게 저장 및 운송할 수 있는 고체 수소 저장 소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함. 수소를 금속 속에 화학적으로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폭발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제조 비용을 크게 낮춘 획기적인 기술 - 연구팀은 마그네슘-니켈-주석(Mg-20Ni-Sn) 합금을 개발하여 기존 소재 대비 수소 저장 성능을 3배 이상 높임. 또한, 고가의 분말 공정 대신 일반 주조 공정으로 얇은 금속 칩 형태로 가공하는 공정을 개발해 제조 비용을 10분의 1 수준으로 절감함 - 이 기술을 적용하면 기존 고압가스 트레일러 운송량의 절반 수준인 5톤 트럭 한 대로도 수소 운송이 가능해 운송비를 대폭 줄일 수 있음. 별도의 특수 장비 없이 대기압 상태에서 일반 화물처럼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어 차세대 에너지 저장 및 운송 분야에 큰 파급력이 예상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기계연, 자연 태양광만으로 그린수소 대량생산 기술 개발 (2025.05.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기계연구원 연구팀이 자연 태양광만으로 높은 효율의 수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함. 비스무트 바나데이트(BiVO_4) 광전극 제조 공정을 획기적으로 단순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상용화 가능성을 크게 향상시킨 성과임 - 연구팀은 고농도의 BiVO_4 전구체 용액을 개발하여, 기존에 8번 이상 반복하던 코팅 및 열처리 공정을 단 한 번으로 단축함. 이를 통해 생산성을 약 5.9배 향상시켰으며, 재료 소모를 줄여 제조 효율성을 극대화함 - 또한 576cm² 크기의 초대형 광전극 시스템을 제작하고 태양전지와 병렬로 연결해 외부 전원 없이 오직 자연 태양광만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데 성공함. 이는 태양광 기반 수소 생산 기술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친환경 수소 생산 상용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됨
지방기관	<p>□ GIST, 철 촉매의 전자스핀 제어로 수소 생산 효율 극대화 메커니즘 규명 (2025.05.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과학기술원(GIST) 서준혁 교수팀이 철(Fe) 기반 화합물 촉매에서 전자스핀 간의 상호작용을 정밀하게 조절하여 수소 생산 반응 효율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규명함. 이는 전자 전달 과정의 효율이 스핀 상호작용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이용한 기초과학적 성과 - 연구팀은 하나의 철 원자만으로도 추가 에너지 소모 없이 두 번의 전자 전달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증명함. 이는 자연계의 수소 생성 효소와 유사한 고효율 방식으로, 철 이온과 결합하는 리간드 분자를 통해 에너지 장벽 없이 반응 경로를 구현한 것임 - 개발된 철 기반 촉매는 전기량 대비 100%에 달하는 수소 생산 효율과 초당 22만 개 이상의 수소 분자를 생산하는 높은 성능을 보임. 이 연구 결과는 수소 생산뿐 아니라 연료전지, 이산화탄소 전환 등 다양한 에너지 전환 기술에 적용될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 <p>□ 서울에너지공사-효성중공업, 도심형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협력 (2025.05.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에너지공사가 효성중공업과 도심형 수소충전소 구축 및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양사는 도심에 설치가 용이한 액화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p>수소 충전소 모델 개발과 안전기준 마련 등에 협력할 예정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협약의 핵심은 액화수소 저장 시 발생하는 증발가스(BOG)의 손실률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 협력임. 이를 통해 충전소 운영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서울 시내 공공부지를 활용한 거점형 액화수소충전소 선도사업을 추진할 구상임 - 양사는 서울시의 양천 공영차고지 액화수소버스 충전소 구축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임. 이는 기존 기체수소 충전소보다 충전 능력이 약 10배 높은 액화수소 충전소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서울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임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해당 없음)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input type="checkbox"/> 우주항공청 개청 1주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 지적 (2025.05.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개청한 지 1주년을 맞았으나,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활성화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등 대형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프로젝트가 아직 청사진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분석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장소 번복 논란과 연구개발본부를 대전으로 신설하려는 법 개정안 발의 등 우주항공청의 위상을 흔드는 이슈가 발생함. 이는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연구 역량을 분산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지역 사회의 반발을 삼 -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개청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임. 도는 우주항공 창업기업 유치, 과학영재 학교 설립 등 15개 신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며 우주항공복합도시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희망하고 있음
	<p>□ 국립광주과학관, '우주항공 문화주간' 맞아 특별 이벤트 운영 (2025.05.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광주과학관이 '우주항공 문화주간'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특별 이벤트를 운영함.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우주항공 기술과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됨 - 행사는 현재 진행 중인 '2025 우주과학 특별전 - 지구 너머의 세계'와 연계하여 진행됨.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전시 관람료 할인, '우주로 가는 대한민국' 롤링 페이지 캠페인, 우주과학 퀴즈 이벤트 등이 마련됨 - 과학관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우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우주과학 특별전의 교육적 효과를 높일 계획임. 퀴즈 정답자에게는 선착순으로 우주 관련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p>□ 우주항공청, 내년 누리호 5차 발사 위한 준비 공식 착수 (2025.05.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항공청이 항우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누리호 5차 발사를 위한 비행모델 5호기의 단 조립 착수 검토회의를 개최하며 발사 준비에 공식적으로 시동을 걸. 이번 회의에서는 단 조립 착수를 위한 준비 상황과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함 - 현재 나로우주센터에서는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한 단 조립이 한창 진행 중이며, 오는 8월 완료될 예정임. 이와 동시에 5호기 단 조립도 착수하여, 2027년까지 매년 1회씩 발사될 누리호의 조립과 시험을 유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임 - 박재성 우주수송부문장은 누리호 4호기와 5호기의 조립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조립 품질, 작업장 안전, 일정 준수 등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여 발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힘. 주탑재 위성과 부탑재 위성 선정도 순조롭게 진행 중임</p> <p>□ KCL, 美 ASTM과 우주항공 표준개발 협력·국내 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2025.05.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미국재료시험협회(ASTM)와 우주항공 분야 표준개발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이는 국내 우주항공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하고, 기술표준 분야의 국제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 - ASTM은 140여 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표준개발기관 중 하나로, KCL은 국내 유일의 우주항공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임. 양 기관은 표준개발 정보 교류, 국내 전문가의 ASTM 기술위원회 참여, 공동 표준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함 - 이번 협약은 국내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KCL은 향후 첨단전략산업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여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임
지방기관	<p>□ GIST, '우주를 그리다' 과학상상 어린이 미술대회 성공적 개최 (2025.05.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우주를 그리다'를 주제로 '제2회 GIST 과학상상 어린이 미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에 나눔의 가치를 더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확대하기 위한 비전의 일환으로 진행됨 - 전국에서 유치부와 초등학생 2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참가 신청이 이틀 만에 마감될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얻음. 참가 어린이들은 우주를 주제로 한 상상화나 GIST의 미래 풍경을 자유롭게 그림 - GIST는 이번 대회를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응원하고, 지역사회와 한층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힘. 수상작들은 캠퍼스 내 '오룡아트홀'에 약 한 달간 전시되어 더 많은 사람과 공유될 예정임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 미래 철강 핵심 '수소환원제철', 경쟁국 대비 미흡한 정부 지원 지적 (2025.05.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 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기술인 수소환원제철의 상용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짐. 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여 탄소 배출을 이론상 ‘제로’로 만드는 이 기술은 국내 총탄소배출의 약 14%를 차지하는 철강 산업의 필수 과제로 인식됨 - 포스코가 하이렉스(HyREX) 기술 개발에 착수하는 등 기업의 노력은 이어지고 있으나, 정부의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269억 원에 불과함. 이는 수소환원제철에만 조 단위를 투입하는 독일,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기술 개발과 더불어 그린수소의 안정적인 유통 구조 및 가격 안정화 등 경제성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함. 국내 재생에너지 단가가 높아 수소환원제철의 생산 단가가 경쟁국 대비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 주도의 수소 밸류체인 구축과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
민간기업	<p>□ 삼성E&A, 그린수소 생산 통합 솔루션 '컴퍼스 H2' 공개 (2025.05.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E&A가 유럽 최대 수소 행사인 '세계 수소 서밋'에서 글로벌 수전해 기업 넬(Nel)과 공동 개발한 그린수소 생산 플랜트 솔루션 '컴퍼스 H2'를 공개하며 글로벌 수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함. 이는 플랜트 건설의 사전 타당성 조사부터 EPC까지 전 단계를 제공하는 기술 솔루션임 - '컴퍼스 H2'는 설계 최적화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수소생산시설 대비 설비 면적을 20% 줄였고, 고효율 전해조 스택과 부대시설을 효과적으로 배치해 생산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함. 양사는 풍부한 경험을 결합하여 최적의 그린수소 생산 솔루션을 개발한 것임 - 삼성E&A는 앞서 넬의 지분 9.1%를 인수하며 협력 관계를 강화했으며, 향후 고분자 전해질막(PEM) 수전해 기술을 적용하는 등 솔루션 고도화를 지속할 방침임. 이번 출시를 통해 글로벌 수소 시장에서 기술력과 사업 역량을 입증하고 사업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현대차그룹, 글로벌 파트너십 통한 수소 생태계 확장 강조 (2025.05.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차그룹이 네덜란드 '월드 하이드로젠 서밋 2025'에 참가하여 수소 분야 글로벌 리더로서의 비전을 제시함. 장재훈 부회장은 수소 경제 확산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탈탄소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임을 강조하며, 글로벌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역설함 - 장 부회장은 국제수소무역포럼(IHTF) 회의에 참석하여 수소 가격 경쟁력 확보와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을 논의함. 특히 모든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국제적 청정 수소 인증 시스템과 상호 평가 표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음 - 그는 향후 수소 경제 전환의 핵심 요소로 '규모의 확대'와 '표준화'를 꼽음. 현대차그룹은 그룹사의 역량을 활용하여 수소 밸류체인 전반의 사업을 확장하고, 글로벌 파트너와 협력하여 수소 기반 미래 사회를 가속화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
	<p>□ 두산그룹, SMR·수소 등 미래사업 가속 위해 3년간 2.6조 투자 (2025.05.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산그룹이 향후 3년간 2조 6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하여 미래 먹거리 사업을 가속화할 계획임. 이번 투자는 소형모듈원전(SMR), 수소연료전지 등 신사업 분야에서 시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됨 - 전체 투자액 중 두산에너지빌리티가 1조 3232억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며, SMR 전용 생산시설 증설 및 가스터빈 역량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두산밥캣 또한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1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임 - (주)두산은 AI 가속기용 동박적층판(CCL)에, 두산퓨얼셀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등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경쟁력 강화에 투자함. 두산그룹은 충분한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과감한 투자를 지속하여 그룹의 외형 성장을 이끌 새로운 수익창출원을 확보할 방침임
	<p>□ 현대차그룹, AI·로봇·수소 등 미래 분야 스타트업에 1250억 투자 (2025.05.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차그룹이 AI, 로봇, 수소 등 미래 신사업 관련 유망 스타트업을 직접 발굴하고 투자하기 위해 1250억 원 규모의 '제로원 3호 펀드'를 새롭게 조성함. 이는 자체 연구개발의 한계를 넘어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의 일환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펀드는 현대차, 기아, 현대차증권이 공동으로 기획 및 운영하며, 현대모비스 등 7개 그룹사가 투자자로 참여함. 아시아 지역의 혁신 기술을 보유한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하고, 그룹사와의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계획임 - 현대차그룹은 이번 펀드를 통해 혁신 기술 분야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임. 이를 통해 미래 사업 확장을 가속화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상생하는 투자 모델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됨
대학교	<div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bottom: 10px;"> <p>□ 경상국립대, 외부 전력 없는 수소 생산 기술 구현 (2025.05.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국립대학교 최명룡 교수 연구팀이 펄스 레이저 기술을 이용해 루테튬-탄소 코어-셸 구조의 고성능 전기 촉매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외부 전력 공급 없이 수소를 생산하는 자가 구동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성공함. 이번 연구는 에너지 변환과 환경 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융합형 청정에너지 솔루션으로 큰 주목을 받음 - 연구팀이 개발한 이중기능 촉매는 수소 발생 반응과 하이드라진 산화 반응을 동시에 높은 효율로 진행하도록 설계됨. 이 촉매를 기반으로 한 아연-하이드라진 전지는 높은 에너지 효율과 긴 수명을 가지며, 방전 과정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함 - 해당 시스템은 외부 전원 없이 자가 구동이 가능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에 중요한 기술적 성과를 제시함. 특히 수소 생산과 더불어 유독성 산업 폐수인 하이드라진을 정화하는 기능까지 갖추어,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미래형 솔루션으로 평가받음 </div> <div style="padding-top: 10px;"> <p>□ KAIST, 변동성 높은 재생에너지 환경서 수소 촉매 수명 예측 지표 첫 개발 (2025.05.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AIST 생명화학공학과 정동영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수전해 시스템에서 촉매의 내구성을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지표 '운영 안정성 지수(OSF)'를 개발함. 이는 불안정한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환경에서 촉매 성능 저하를 정밀하게 진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임 - 운영 안정성 지수는 반복적인 가동 및 중단 상황에서 촉매가 손상되는 정도를 퍼센트 단위의 수치로 나타냄. 예를 들어, OSF가 99%라면 작동이 정지될 때마다 촉 </div>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대학교</p>	<p>매 성능이 1%씩 감소함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실제 운전 조건에서의 안정성을 예측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지표는 수전해 장비의 장수명 설계와 내구성 진단을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향후 국제 표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큼. 연구팀은 이 지표를 기반으로 실제 운전 환경에 최적화된 수전해 조건을 도출하고 수소 생산 시스템의 수명을 연장하는 후속 연구를 계획하고 있음 <p>□ 한양대 하성규 교수, 세계 최초 재활용 수소탱크 기술 상용화 성공 (2025.05.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양대학교 하성규 교수가 세계 최초로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수소탱크 기술을 개발하고, 대학 스타트업 '쓰리피닷컴'을 통해 글로벌 기술 상용화에 성공함. 이 기술은 34년간의 복합재료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 가치를 창출한 사례임 - 개발된 수소탱크는 복합재 기반으로 기존 제품보다 가볍고 강하며, 재활용이 가능해 ESG 경영이 중시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함. 이미 대만과 인도 기업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로열티 수익을 확보한 상태임 - 또한, 중국의 세계적 바이오 수지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100억 원 규모의 합작법인을 설립함. 이를 통해 수소탱크 및 파이프의 대규모 양산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며, 아시아 수소산업 허브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음
<p>해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p>기타</p>	<p>□ 수소 모빌리티, 실내물류·선박까지 전면 확대 위한 규제 개선 (2025.05.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에 자동차로 한정되었던 수소연료 충전 대상이 지게차, 무인운반차 등 실내 물류운반기계와 선박까지 확대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 이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의 안전성이 검증된 결과임 - 그동안 자동차 외 수소 모빌리티는 충전이 불가능하고 이동식 충전도 어려워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한계가 있었음. 울산 특구는 2019년부터 지게차, 선박 등에 대한 실증을 추진하며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효용성과 안전성을 입증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기타	-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가 개정되어 올해 5월부터 시행됨. 이번 규제 개선은 수소 모빌리티 관련 신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수소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해당 없음)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해당 없음)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큐알티, 우주항공 핵심 반도체 국책과제 참여 소식에 주가 상승 (2025.05.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신뢰성 평가 전문기업 큐알티가 우주항공 테마주 강세 속에서 주가 상승세를 보임. 이는 과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는 국책과제에 참여한 사실이 다시 부각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 큐알티는 '우주급 다이오드 부품 개발' 국책과제에서 신뢰성 및 방사선 시험 수행기관으로 참여한 바 있음. 우주항공 분야의 핵심 반도체 부품 중 하나인 '쇼트키 다이오드'의 시험 수행을 담당한 것임 - 해당 시험은 우주 환경의 극한 조건을 견뎌야 하는 부품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과정으로, 미국 국방성 군사 표준 규격에 따라 기계적 충격, 환경, 수명, 방사선 시험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함. 이를 통해 큐알티의 기술력이 우주항공 분야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됨</p>
	<p>□ 삼성물산, 우주 후방산업 진출 및 SMR 기대감에 주가 급등 (2025.05.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물산의 주가가 우주 후방산업 진출 소식에 힘입어 11% 이상 급등함. 삼성물산이 서울대학교와 함께 우주 발사장 건설을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주가 상승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함 - 이는 기존의 건설 및 상사 부문 외에 우주항공이라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한 것임. 이와 더불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소형 모듈원전(SMR)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주가에 호재로 작용함 - 증권가에서는 그동안 국내 주택사업에 집중하며 주가가 부진했던 삼성물산이 SMR 사업 순항과 신사업 진출 등을 계기로 지주사로서의 가치를 재평가받고 있다고 분석함. 홍콩계 증권사는 목표주가를 18만 원으로 제시하기도 함
대학교	<p>□ 경상국립대, 네덜란드 왕립항공우주연구원과 기술교류회 개최 (2025.05.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국립대학교가 네덜란드 왕립항공우주연구원(NLR)과 공동 기술교류회를 개최하며 국제 기술 협력 확대에 나섬. 이번 행사는 경상국립대의 우주항공·방산 특화 연구 플랫폼인 경남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GADIST)이 주관하여 진행됨 - 교류회에서는 인공지능(AI), 첨단소재, 시스템 자동화 등 항공우주 분야의 핵심 기술 이슈를 중심으로 양 기관 연구진의 발표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짐. 이를 통해 미래 공동연구 방향과 구체적인 협력 모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됨 -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양 기관이 체결한 포괄적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단순한 기술 소개를 넘어 경남 지역 항공우주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연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됨
	<p>□ 순천대-에이블맥스, 우주항공 고흥캠퍼스 활성화 위한 협약 체결 (2025.05.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천대학교 우주항공·첨단소재스쿨이 열해석 전문기업 에이블맥스(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주항공 고흥캠퍼스 활성화 및 지역 인재 양성에 협력하기로 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대학교</p>	<p>이는 글로벌대학 사업의 성공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 기관은 인공위성 및 발사체 설계를 위한 전산해석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고, 기업 수요에 기반한 실무형 인재 양성에 나설 계획임. 또한, 재직자 역량 강화와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수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됨 - 순천대학교는 이번 협력을 통해 지역 기반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인재 양성-산업 연계-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임. 이를 통해 고흥이 우주항공 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기여할 계획임
<p style="text-align: center;">해외</p>	<p>□ 트럼프,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망 '골든 돔' 계획 공식 발표 (2025.05.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차세대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망 프로젝트인 '골든 돔(Golden Dome)'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함.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영토와 동맹을 보호하는 철통 방패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골든 돔은 수백 기의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배치하여 미사일 발사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발사 직후 요격하는 시스템임. 이는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에서 착안했으나, 우주에서의 감시와 요격을 동시에 수행하는 '전 지구적 방어망'이라는 점에서 차원이 다른 전략 자산으로 평가됨 - 총사업 규모는 약 1,750억 달러에 달하며, 모든 구성품을 100% 미국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강조함.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주요 운용이 시작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며, 캐나다 등 동맹국과의 협력 가능성도 언급함
	<p>□ 중국, 우주정거장 '톈궁'에서 지구에 없는 신종 박테리아 발견 (2025.05.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연구진이 자국의 우주정거장 '톈궁'의 거주 객실에서 채취한 표본에서 지구상에 보고된 적 없는 신종 박테리아를 발견했다고 발표함. 이 박테리아는 '니알라스 티안공 엔시스(Niallia tiangongensis)'로 명명되었으며, 관련 연구는 국제 학술지에 게재 - 이 신종 박테리아는 지구의 '바실러스 서쿨런스'와 유사하지만 유전적, 대사적으로 다른 특성을 보임. 특히 우주 방사선에 대한 강력한 생존력을 보이며, 방사선으로 인한 내부 손상을 신속히 복구하는 능력을 가져 주목받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박테리아가 우주인의 건강에 미칠 영향은 아직 불분명하나, 유사종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패혈증을 일으킬 수 있어 유해 가능성이 존재함. 이번 발견은 장기 우주 임무 중 미생물이 우주인 건강과 우주선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임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부)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